



##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구현하는 청주성모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위치한 청주성모병원은 (구)리라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 충북지역 주민의 건강유지, 질병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천주교 청주교구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톨릭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병원을 인수하였다. 1998년 3월 25일 122병상 21개 전문진료 과목으로 개원한 이래 지역주민의 신뢰와 호응에 힘입어 현재 의료진 119(전공의 포함)명, 간호사 307명을 포함하여 총 8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98병상에 21개 전문 진료과목을 갖추고 충북 지역 의료를 선도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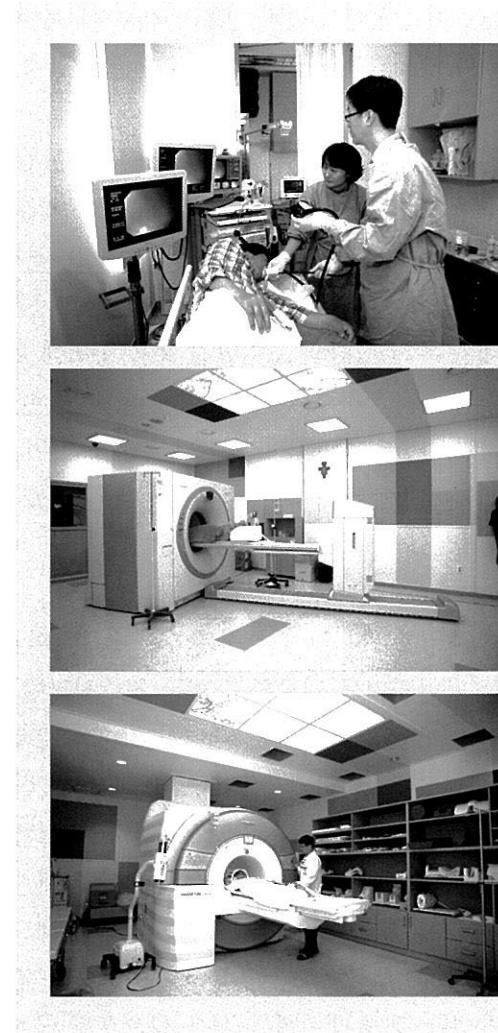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목적으로 우수한 의료진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사랑을 담은 의료봉사를 베푼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청주성모병원은 1998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의 응급의료센터 지정인가로 청주시민은 물론 청주 북부지역 주민의 응급환자 진료의 질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같은 해 인턴 수련병원, 1999년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인가를 받아 우수한 전공의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는 병원 전산망인 OCS(의료처방전달시스템) 및 환자를 위한 필름 없는 병원시스템인 최첨단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를 갖추었다.

청주성모병원은 진료, 간호, 모든 행정의 전산화, 영상의학과의 필름 없는 PACS, 진단검사의학과의 LIS, 자재과의 물류시스템(MDVAN) 등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정보화를 이루었다. 또한 이들 디지털 정보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환자관련 모든 정보를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이중 보호가 가능한 '환자정보 무손실 시스템'이라는 재해복구시스템을 국내 병원 중 가장 먼저 구축하여 병원 경영 효율화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최근 2009년부터 3년여에 걸쳐 병원 건축 및 리모델링 전문회사인 Korea A. I.(주)에 의뢰하여 외래진료동과 종합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고 응급의료센터, 현관 및 접수대기 공간, 병동,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면적인 1차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서울 대형병원과 동일한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신의 PET-CT, 3D CT, 3.0T MRI, Digital MAMMO, 초음파내시경, 2대의 혈관조영기 등 주요 의료장비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교체하였다. 이로써 청주성모병원은 2006년 전문경영진단에서 제1현안으로 제시된 외래진료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4,950m<sup>2</sup>(1,500평) 규모의 건물로 신축된 외래진료동은 현대 감각의 청록색 라임스톤으로 외벽을 치장하고, 지하 1층에 영상의학센터, 3층에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4층에 종합건강증진센터를 두어 연 인원 40만 명에 달하는 1~2층 외래환자 진료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극대화하였다.

지상 1~2층에 자리한 외래진료실은 질환별 협진효과를 높이기 위해 뇌신경센터, 소화기센터, 심장혈관센터, 척추센터 등 센터중심으로 배치되었으며, 실내 공간은 환자들에게 정서적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진료과별 색



상디자인이 적용되었고, 진료대기 공간을 별도로 구획하여 진료 대기 중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외래진료실과 접수대기 공간이 아늑한 중앙정원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진료실을 오가며 관상수가 주는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다. 이 중앙정원은 입원환자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한편 추후 미술작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 음악 연주회가 가능한 공연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이다.

신축 외래진료동 3층에 자리한 진단검사의학과 역시 최신의 자동화 검사 장비를 새로이 도입해 년 4백만 건이 넘는 다양한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일상적인 검사의 경우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1시간 이내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진단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3층에 자리한 병리과는 가장 조용하고 청결한 환경 속에서 세포 및 조직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신축 외래진료동 4층에 자리한 858m<sup>2</sup>(260평)의 종합건강증진센터 역시 20여 개의 독립적인 검사실을 갖춘 중부권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 종합건강증진센터는 건강검진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를 새로이 도입하고 전문 의료진을 증원하여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특히 질환의 조기발견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종합건강증진센터는 국가 차원의 예방의학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이 독립된 공간에서 원스톱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두고 있다.

2006년부터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며 매년 약 3만 명에 달하는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청주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기존 280.5m<sup>2</sup>(85평)에서 640.2m<sup>2</sup>(194평)로 2배 이상 확장되어 응급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환자분류소, 소아진료실, 관찰실, 중환진료실, 외상처치실, 격리실을 비롯해 회의실과 상담실 및 의사당직실, 전용접수실, 보호자대기실, 안전요원대기실 등을 갖춘 응급의료센터는 선진국형 응급진료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특히 생물학적 테러나 신종 플루 등 감염성 질환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한 시설을 함으로써 국가재난 대비태세를 확립

하였다.

병동 리모델링은 무엇보다도 다인실(5인 기준)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을 두어 환자 편의에 최대 주안점을 두었으며, 병동마다 별도의 쾌적하고 편안한 휴게실을 두어 입원 환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병동마다 간호사실, 간호준비실, 전공의 구역, 공동화장실, 다용도실, 관찰실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최상의 병동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병원 현관은 환자 출입의 편의성을 높이고 건물 냉·난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전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도보환자의 출입이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별도로 3개의 자동문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로비에는 고객지원센터와 안내센터가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처음 병원을 찾거나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되는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 비좁았던 접수 및 대기 공간을 두 배로 확장하고, 전산으로 처리되는 수납 및 진료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접수 및 대기 환자의 편의를 극대화하였다. 한편 이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은행, 매점, 의료기점, 커피점, 만남의 방 등 로비 편의시설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였으며, 특별히 병동 입원 환자를 위한 별도의 복도를 마련하여 로비 공간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외래진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더불어 청주성모병원은 새로이 PET-CT, 3D CT, MRI, Digital MAMMO, 초음파내시경, 혈관조영기 등 주요 장비를 도입해 지역의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는 신체 내 암의 유무와 상태, 재발, 전이 여부 등을 정확히 진단하는데 기존까지 진단이 어려웠던 수mm 크기의 미세 암세포나 조직을 발견할 수 있다. 3D CT(다면검색컴퓨터단층촬영기)는 짧은 시간에 고해상도의 3D 영상을 획득하는 동시에 심장이나 대장 등 움직이는 장기는 물론 뇌혈관의 질환까지도 촬영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 3.0T MRI(자기공명영상촬영기)는 관상동맥은 물론 미세한 혈관이나 뇌 기능의 영상을 획득 할 수 있어 뇌종양, 뇌출증, 디스크 등의 진단에 적합하다. Digital MAMMO는 크기가 작거나 명암 식별이 어려운 대상까지도 포착 할 수 있는 높은 해상도로 유방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초음파내시경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보기 힘든 장비로 기존의 내시경으로는 진단할 수 없는 점막하용종을 정확하게 식별해 내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 새로 도입된 혈관조영기 중, 영상의학과 전용 혈관조영기의 경우 과거에 없었던 3D 영상 획득, CT 이미지 제공, 자동 위치보정 기능 등으로 뇌혈관과 동맥질환 진단 및 정확하고 신속한 중재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심장내과 전용 혈관조영기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중재술은 물론 고급 3D 영상을 통해 정밀한 시술과 소혈관 시술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청주성모병원은 중부권 병동대비 중환자용 Bed 비율이 중부권에서 가장 높은 병원이다. 이러한 경우 병원의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써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후송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지 않게 장비, 인력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가정간호’ 방문서비스를 시행해 어렵고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우 환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및 각종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환자들을 위한 건강강좌 및 바자회, 음악회, 무료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꾸준히 개최하여 지역 친밀형 병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청주성모병원이 짧은 기간 내에 지역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에 대한 투자 덕분이었다. 환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생활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친



청주성모병원은 중부권 병동대비 중환자 용 Bed 비율이 중부권에서 가장 높은 병원이다. 이러한 경우 병원의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써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후송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지 않게 장비, 인력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우수 직원에게는 표창과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했으며, 불친절 사례를 접수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QI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인 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앞으로도 청주성모병원은 지속적인 최신 의료시설 투자와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것이다.